

야마토미싱[ヤマトミシン製造株式會社] 이 재봉틀이 아니면 못 만드는 옷

(1) 기업개요

소재지	大阪府大阪市北区西天満 4 丁目 4 番 1 2 号
설립연도	1927년
분야	공업용 재봉틀 제조 판매
자본금	3억 6,300만 엔
URL	http://www.yamato-sewing.co.jp

(2) 재봉틀과 일본의 ‘미싱’

‘미싱’이라는 말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듯싶다. 재봉틀을 일본어로 ‘미싱’(ミシン)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싱’은 영어에서 온 말이다. 일본에서 영어의 sewing machine을 발음하면서 변형되어 ‘미싱’으로 굳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미싱’은 원래 의미대로 처음에는 ‘봉재미싱’으로 불리다 앞부분이 생략되어 ‘미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재봉틀이 처음 일본에 소개된 것은 1854년이다. 일본이 근 2세기 동안이나 유지해온 쇄국정책을 버리고 서구와 무역 및 외교 관계를 맺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미국의 해군 사령관 페리가 두 번째로 일본을 찾았을 때 갖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일본에서 재봉틀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明治, 1868년 10월 23일 ~ 1912년 7월 30일)시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초기에는 수입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다가 고장수리 등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기술자에 의해 서서히 일본 국내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일본에서 재봉틀이 양산체제에 들어갔

으나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수입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가정용재봉틀 제조는 금지되었고 전시 중에 재봉틀은 군수용만이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1945년 패망이후 재봉틀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섬유제품(특히 어패럴)이 일본의 주요 수출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1947년 가정용재봉틀에 대한 규격이 통일되어 1948년부터 규격에 따른 제품 출하가 시작되었다. 또한 국내 판매만이 아니라 재봉틀 그 자체도 중요한 일본의 수출품목으로 부상했다. 일본에서 재봉틀은 공업용뿐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많이 제조되었다. 당시 일본 여성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부수입을 얻기 쉬운 재봉틀을 결혼예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본 국내 재봉틀 제조업체들이 가정용재봉틀 공장을 1970년 경부터 동남아지역으로 옮기면서 현재는 몇몇 고급기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공업용재봉틀도 생산비용 절감과 어패럴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생산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재봉틀은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고도의 금속가공기술이 필요하여 부품의 상당부분은 일본국내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공업용재봉틀 제조의 명맥을 이어가며 세계적인 고급브랜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기업이 야마토미싱제조주식회사(이하, 야마토미싱)이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며 특히 수선용 재봉틀 분야에서는 견고하고 소음이 적은 제품으로 평판이 나있다. 그래서 세탁소 등에서 쓰이는 수선용 재봉틀에서 야마토미싱의 브랜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3) 성장과정과 Only-One 기술

야마토미싱은 1927년에 창업한 공업용재봉틀 제조업체다. 세계에 이름난 대부분의 봉제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활동무대가 넓다. 이 기업의 지상 목표는 ‘세계 모든 봉제공장의 단짝’이 되는 것이다. 기술개발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마케팅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아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는 야마토미싱이 보유한 기술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독일 함부르크와 중국 상해 등 세계 23개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현지 수요에 대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야마토미싱이 만드는 ‘미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보급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축적 그리고 명확한 시장조사에 의한 실천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내의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신축성이 뛰어난 stretch소재가 있다. 야마토미싱은 주요 국가의 여성(18~49세)의 약70%가 stretch소재를 정기적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된 제품개발에 거액을 기술개발 투자를 했다. stretch소재를 봉제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자주 재봉부위가 엉켜 소재를 손상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결국 소재가 지닌 최대의 장점이었던 신축성마저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마토미싱이 개발한 공업용재봉틀이 바로 “VGS2700-8시리즈”이다. 기존에 자주 문제가 되었던 소재의 뒤틀림을 없애고 신축성을 2배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지금은 이 시리즈의 재봉틀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의류가 적지 않다.

“VGS2700-8시리즈”에 옵션으로 붙는 “UTL장치”는 편평(偏平)바느질의 문제점이었던 껌맨 마지막 부위의 폴림현상을 방지하는 장치로, 거래 기업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품질개선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07년에 개발한 옵션장치 “ACCT-10”은 레이스 등의 작업이 힘든 소재를 센서를 통한 디지털 제어 방식으로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고객의 대부분으로부터 생산성이 30%이상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마토미싱은 1966년에 공업용재봉틀 “DCZ361”을 출시하면서 일본 업체로는 처음으로 당시 세계최고의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독일시

장에 진출했다. 그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업체의 등장 자체도 놀라움의 대상이었으나, 출시한 제품의 완성도는 독일의 세계적인 업체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야마토미싱은 그 이후 고품질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제품개발에 주력한 결과 여러 세계적인 굴지의 봉재업체들의 글로벌 소싱 파트너로써의 지위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4) 상대적 우위성

야마토미싱이 세계시장에서 탁월한 실적을 계속해서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는 세계각지에 거점을 확보하고 현지수요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체제를 갖춘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본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재봉틀 제조기술을 응용하여 반도체 제조장치와 광학 검사장치를 제품화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구매하는 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개발은 물론이고 소재의 생산과 절단, 봉재장치 등 일관된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야마토미싱은 ‘제안형 영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오래 전 의류업체가 모든 부품공급업체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야마토미싱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우리가 만드는 재봉틀을 사용하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 결국 이러한 적극적인 제안활동이 인정되어 의류업체로부터 ‘베스트 서프라이어 상’을 수여하는 영광을 안았다.

<참고자료>

야마토미싱 홈페이지(<http://www.yamato-sewing.co.jp>)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J-Net21 홈페이지(<http://j-net21.smrj.go.jp>)